

법향 실은 선율로 고통 날린다

허허원 환우 위한 희망음악회, 송광사 산사음악회 열고 환우 위문 잇달아

청아한 산사,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과 밝은 보름달빛 속에서 듣는 아름다운 선율. 산사음악회 만이 갖는 어울림의 매력이다. 순천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는 산사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6월 1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회 관음사 산사음악회는 최경민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지현 스님 및 이경훈 사하구청장, 현기환 국회의원, 류재용 사하경찰서장 등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공연은 특별히 국악공연으로만 진행됐다. 국악과 불교가 일반인들에게 웬지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리감을 친숙함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였다. 이삼 스님의 대금 독주와 국립국악원 단원 및 무형문화재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회심곡》 《청성곡》 등은 여름 산사의 운치를 더했다.

지현 스님은 “우리 문화 고유의



부산 허허원과 센텀병원은 6월 10일 센텀병원에서 제3회 희망음악회를 개최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했다. 음악은 통증이나 불안감 경감에 큰 효과가 있다.

아름다움을 살려 국악과 절과 스님, 불교가 멀리 있지 않음을 알리고자 했다”며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음악과 불교의 만남이 불교와 국악의 대중화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불교와 음악의 만남은 산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음악이 갖는 치유효과를 살려 부산 허허원(원장 정태)은 센텀병원(원장 박종호)과 함께 6월 10일 센텀병원 1층 로비에서

‘제3회 희망음악회’를 개최했다. 공연은 대북과 드럼패들, 경기민요, 바이올린 독주, 즉석 환우노래 자랑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병마와 싸우는 300여 환자와 보호자들은 음악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 박지원 기자

약은 통증이나 불안감 경감에 상당한 치유효과가 있어 매 음악회마다 호응이 뜨겁다.

정태 스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역할도 크다. 하루 속히 병이 낫길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고운 마음으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며 살 것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병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호 원장은 “우리 몸은 억지로 짓는 웃음만으로도 엔돌핀을 생성하는 교감신경이 발달해 있어 자연치유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前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의 주치의였던 박 원장은 “월하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길은 자신만의 의술을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보시해 치료하는데 있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음악회를 통해 많이 웃고 병마로 인해 괴로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처지를 바꿔 생각하라

고리원자력발전소 불자모임 ‘고리반야회’ 신입회장 손태봉 신고리제2발전소장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하고 인생을 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신심과 원력으로 원자력사업을 안전하게 발전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불자모임 ‘고리반야회’의 신입회장으로 손태봉(사진) 신고리제2발전소장이

오상권 직전회장은 이임사에서 “일의 성공과 부지런한 수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손 회장은 25년 전 발족 당시부터 고리반야회를 묵묵히 지켜온 창립멤버라는 자부심을 갖고 소임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 회장은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어린 시절 심심했던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 절에서 귀어워주던 스님들이 마냥 좋았다면, 장성해 군에 입대하고 군법당에서 만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생 좌우할 인생의 지침이 됐다.

그는 전 직역에게 늘 세가지 마음가짐을 당부한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와 처지를 바꿔 생각하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 그리고 일제 스님의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진리의 세계다’라는 ‘수처자주 임처계

“25년된 단체지만 법당 아직 없어 임기중 작은 법당 마련에 힘쓸 터”

취임했다. 고리반야회는 6월 21일 기장 해광사(주지 혜성) 대웅전에서 창립 25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창립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손태봉 회장은 원년 멤버로 25년간 신심 진작에 힘써왔다.

손태봉 회장은 1986년 4월 5일 회사 내 도반들과 삼삼오오 모여 송광사로 몇 차례 선수련회를 다녀온 후 회사 내 불자모임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15명의 도반이 모여 고리반야회를 발족했다.

고리반야회는 매년 전국 명찰을 참배하고 직원수계법회, 고승대덕 초청법회, 원전 수거를 부지확보를 위한 108참회기도법회를 부안 내소사, 경주 불국사 등지에서 봉행하는 등 끊임없이 수행정진에 매진하고 있다.

오상권 前회장은 손 회장과 같은 부서 상관으로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온 만큼 후임회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컸다.

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종종 불교경전 속 가르침 전하고 있다. 종교적인 강요가 아닌, 스님의 말씀을 통해 직원들에게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손 회장은 “불자직원들은 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동체대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동료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모든 면에서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주도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손태봉 회장은 한 가지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있다. 25년된 고리반야회에 아직까지 법당이 없어, 매년 인근의 사찰에 협조를 구해 어렵게 법회를 이어왔다. 손 회장은 “임기 내에 회사 안이나 인근에 작은 법당을 조성해서 고리반야회 도반들이 편안하게 기도하고, 직원 누구나 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종교와 시대 초월한 효사상 담았다”

영화 ‘훈장과 악동’ 정여 스님 등 불교계 응원 속 29일 개봉



정여 스님과 김봉근 훈장.

영화 ‘훈장과 악동들’ 시사회에 영웅사 주지 정여 스님, 김해 여영자 주지 도명 스님, 영화제작 관계자 및 부산시민 등 100여 사부대중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영화는 2010년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초등생 50명이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민족학당에서 효(孝)와 예절을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영화는 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예절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었다.

영화에는 유교 뿐 아니라 불교, 기독교의 효 사상도 조망해 깊이 다뤘다. 불교적 관점에서의 ‘효’에 대해서는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의 인터뷰를 특별출연 형태로 담았고, 기독교에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구 담임목사 인터뷰를 담았다. 영화는 김봉근 장학동예절학교 훈장(44)이 총감독을 맡았다. 90분

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영화에는 김봉근 훈장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김봉근 훈장은 “효가 유교사회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교와 시대를 초월해 인간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부모은중경) 등 효를 강조하는 부처님 가르침처럼 여러 불자들이 효에 대해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여 스님은 “아이들의 마음은 본래 때 묻지 않은 연꽃 같은 마음인데 이를 일깨워주는 훈장의 역할이 스님네와 닮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영화 속 민족학당의 장점을 불교계의 청소년프로그램에 접목해도 좋을 것 같다. 삼랑진 여영자 사에 총요관(가칭)을 짓고 김봉근 훈장의 예절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효산 스님, 전시 수익금 전액 기부



예승(藝僧) 효산 스님(세연사 주지·사진 왼쪽)이 전시회 수익 2000만원 전액을 ‘제95차 국제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준비기금으로 보시했다. 효산 스님은 6월 22일 국제봉사

박지원 기자

삼계선원, 제1회 경로잔치

김해시 삼계동 김상사 삼계선원(주지 혜수)은 6월 20일 대법당에서 제1회 지역어르신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근 지역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해, 맛

있는 점심공양과 마산MBC ‘활력충전’ MC 김태홍이 진행하는 ‘야단법석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혜수 스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경로잔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천지공사 건성도통으로 무량대복을 받아 거부장자 스승되어 광명도통으로 천지조화를 부리는 육경신도통법회 및 생명에 문인 현관을 찾아 부모 조상 죄와 업을 소멸하는 신묘년 백중대제로 구대선망 오대조상 일체 해원상생대법회

죄와 업을 소멸하는 천학대도 자성에 문은 말과 글과 그 어떠한 수행으로는 생명에 문을 찾지 못하며 수많은 세월과 목을 매는 진광대도 우주와 내가 하나되는 문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경신도통이란 멀지 않은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몸이 붙은 산을 떼지 못하며 자손으로 내려 가지 않고 자기대에서만 부리는 도법을 받는 날이 신묘년 2011년 7월 3일 ~ 4일 경신일 자신이 도통하는 성불 받는 날인 것이다.

◆특별 금년 신묘년은 천, 북 대운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수행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사업마장, 결혼마장 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역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윷대 조상님들이 본인에게만 열어주고 천복대운으로 자시에게 안가는 행운을 열어 운명을 바꾸는 것이며 모든 종교가 윷불선이 하나 되는 법도이므로 이 기도로 하늘 땅 모든 대운을 받아 지금까지는 과거 지나간 일들만 말하는 것을 미래에 닥쳐오는 운명과 길흉과 철학 철술예언 예측하는 해안통 수행으로 천지와 복덕이 합하고 일월과 밝음이 합하고 귀신과 길흉을 합하고 사시 오행이 합하고 육갑음향과 세월 일시가 합하는 성스러운 대운을 받아 잡신 마장을 소멸 하는 날이므로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는 경신 수행자에게 보림하는 법을 얻는 천장지법인 것이고 관심법으로 많이 안 배워도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운명과 건강 출세 신비의 명리철학 오행철학 성명철학 풍수철학 동양철학 등 팔신공 도천명으로서난날만 맞추던것을 즉시 도통 말문이 열리는 도법을 성불받아 일체를 관리하는 도통 군자로 자격증을 얻어 철학원과 포교원을 경영하여 평생직업에 구애 받지 않는 자격을 얻어 거부장자되는 대용맹정진 도통법 대법회

천지공사 육경신도통이란? 천하의 비밀법에 자신이 운명을 비껴갈 수 있는 영포대로 죄와 업장소멸하여 자신이 운명을 조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도통법 인 것이며 천지공사인 것이다.



거부장자문 시는 날이무인자: 매일 02(821-6622)/010-3239-3110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해안통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고통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윷불선이 하나로 되는 도천명을 득도하는 육경신 도통만이 윷행되는 전염병과 그 어떠한 병도 다스리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조상에게 빚이 된 영혼문을 열어 일체 영가를 해탈 시키는 초동력으로 생명에 문을 찾는 대법회 및 저승사자 면허증 받는날이다.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해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문을 열고 정신과 신심의 문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 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건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수십년 부귀장수하는 능력을 얻는 도통법인 것이다.

- 입제: 양력 2011년 7월 3일 (음 6월 3일 일요일) (해시)
- 해제: 양력 2011년 7월 4일 (음 6월 4일 월요일) (해시)
- 상담전화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광대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전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하차 농협지나 300M 두번째 건물목건너 약사회 골목 우측 서울부산동시법회: 부산직할시 금정구 장전3동 경문사도량 상담전화: 051)635-3110 / 010-8533-1601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옹조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실뿔 세계불교 달마중 중 본산 도원.태일 합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